

# “저공비행 무장헬기 기관총 생생히 목격”

### 여성 선교사 언더우드, 美대사관 보고서에 기총소사 기록 “머리 위 두대 맴돌고 한대 더 나타나 기관총 아래로 겨냥” 5·18재단 확인...미 공군 증사에 광주 폭격 경고 듣기도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헬기가 광주 시민을 향해 기총소사를 자행했다는 미국인 선교사의 증언들이 발굴됐다.

기존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증언에 이어 새롭게 헬기사격 관련 외국인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쏜 총탄이 연성탄(살상력을 더하기 위해 인체 내부에서 잘게 쪼개지는 탄환)이었고 헬기에 장착한 기관총을 봤다는 생생한 목격담이어서 주목된다.

5·18기념재단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외기록물 발굴 소개 사업의 하나로 4건의 영문자료를 번역해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 2016년 재단이 UCLA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발굴, 확보

한 5·18 관련 자료 6300건 중 일부를 최종 주 재단 비상임연구원이 번역·분석한 것이다. 미국인 선교사의 증언록 2건, 광주 무력 진압 직후 광주를 방문한 해외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보고서 2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번역작업에서는 여성 선교사 진 언더우드(Jean W. Underwood)의 헬기 사격 목격담이 새롭게 발굴됐다. 진 언더우드는 미국 연합 장로회 소속 선교사로서 1954년부터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으며, 5·18 당시에는 남편 존 언더우드와 함께 옛 전남도청 인근 제일교회와 기독교원에서 선교사로 재직했었다. 진 언더우드는 5·18이 끝난 후 미국대사관에 보낸 보고서

에서 헬기사격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1980년 5월21일 상황에 대해 “오 후 3시 헬리콥터들이 도시 주위를 돌며 인파를 향해 사격을 했다”(3:00 p.m. Helicopters began circling around the city, shooting into the crowds from the air)고 기록했다.

또 “머리 위에는 헬리콥터 두 대가 맴돌고 있었다. 갑자기 한 대가 더 나타났는데, 기관총을 아래로 겨누고 있는 군인이 보일 만큼 낮게 비행했다”(Overhead two Helicopters were circling. Suddenly a third appeared, flying so low that I could clearly see the soldier sitting in the open door with his machine gun pointing down)는 무장 헬기 목격담도 적시했다.

이는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헬기 목격담과 시간·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진 언더우드 여사는 피터슨 목사 사택 옆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1980년5월26일 광주 송정리 공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공군 소속 데이비드 힐(David Hill) 중사가 ‘광주를 폭격할 수 있으니 서둘러 대피해야한다’고 광주 선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날 5·18 당시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서 광주에서 활동했던 데이비드 폴린저씨도 이번에 공개된 번역 보고서를 보고 최 연구원에게 “나 또한 헬기에서 쏜 연성탄이 맞은 환자의 X-레이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진 언더우드 여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헬기 사격에 대한 내용이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장 헬기는 똑똑히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터슨 목사 등 그동안의 목격담과 폴린저씨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보면 1980년 5월21일 오후 헬기 사격은 확실한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국내 최대 보이스포싱 조직 일망타진

### 광주경찰 ‘박사장파’ 100명 적발

광주경찰이 국내 최대 보이스포싱 조직으로 조직원만 100명에 이르는 일명 ‘박 사장파’를 사실상 일망타진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포싱(전화금융사기) 범죄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여·39)씨 등 10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015년부터 최씨 등이 가담한 보이스포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모은 385명으로부터 48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67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임 박모(43)씨 등 1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최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한 뒤 가르쳐준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방법으로 385명으로부터 4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포싱 조직원들로 장부실장, 상담원, 인출액 등이다. 경찰은 또 보이스포싱 피해금 47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수거책 2명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대부분 무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나 청년층이 대다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직인 최씨와 최씨의 오빠는 보이스포싱 조직에 먼저 가담한 남편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과 최씨의 오빠는 현재 총책임 박씨 등과 함께 해외도피 중이다.

이재현 광주경찰청 수사팀장은 “일부 젊은이들이 해외여행도 하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핏에 빠져 보이스포싱 범죄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치매안심센터 취업 미끼 9300만원 채팅 학원장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5일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취업을 미끼로 교육생으로부터 수십만원을 받고 가짜 ‘치매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 사설학원장 신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북구 신안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비인가 자격증을 발급하며 교육생 1인당 수강료 80만원을 받는 등 교육생 120명으로부터 9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신씨는 ‘치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에 취업할 수 있고 준공무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이혁 강진경찰서장이 지난 24일 강진군 도암면 지석마을회관 내 현장지휘소에서 실종 여고생 사건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오리무중...부검해도 사인조차 못찾아

### 부패 심해 상처 등 확인 안돼 공범 존재 여부 등 다각적 수사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을 조사 중인 강진경찰이 25일 실종된 이모(16·고교 1년)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부검했지만, 사인(死因)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발견된 시신을 검안한 데 이어 이날 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부검을 했으나, 골절 등 뚜렷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아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시신은 얼굴과 정확한 키를 가능하게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심해 신체가 놀리거나 압박받은 흔적, 작은 상처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양이 실종된 지난 16일부터 9일간 강진의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랐고, 19일에는 14.5mm의 비까지 내린 탓에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부패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머리카락이 대부분 없는 점은 의문이다.

경찰은 현재 2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이양의 휴대전화

와 등 유류품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유력한 용의자인 이양 아버지의 친구 김모(51)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 때문에 공범 존재 가능성도 있다.

시신 발견된 지점은 매봉산 정상 인근으로 경사가 70~80도에 이르는 가파른 곳으로, 김씨 차량이 목격된 지점과는 1km 떨어져 있는데다 성인 걸음으로는 30여분 거리다. 경찰은 다소 왜소한 체격(키 172cm·체중 68kg)의 김씨가 키 160cm·체중 70kg의

이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혼자서 산 정상으로 끌고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양 스스로 걸어갔거나 김씨를 도운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약물 중독·외상 등 이양 사망 원인을 다양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김씨가 16일 오후 급사자수지에 들른 이유, 살해수법, 시신이 산 정상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강진군 성전면 자신의 집을 나서며 친구에게 “알바를 소개해 줄 아빠 친구와 만나 해남 쪽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SNS메시지를 남긴 뒤 실종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폭력조직 억울” 여운환씨 재심 촉구 탄원

여운환(65)씨가 광주고법에 재심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무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가려달라며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992년 당시 수사 검사는 흥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로, 여씨를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 P.J파 두목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여씨는 지난 20일 광주고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1992년 흥준표 당시 광주지검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되기 전까지 사소한 사건 하나에도 연루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 입건되거나 조사 한번 받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다”면서 “그런데 당시 흥 검사가 저와는 그 어떤 관계도 없는 국제 P.J파 두목이라는 거짓 감투를 씌우는 바람에 30여년 가까이 저는 물론 제 가족까지도 연좌제식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오랜 세월 경찰로부터 사찰까지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겪은 사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라도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여씨에 대한 당시 유죄 판결의 결정적 직접 증거로 박모 조직원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사’를 들었으나, 해당 조항은 1996년 헌법재판소가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여씨는 1992년 흥준표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가 범죄단체 두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으면서도, 검사의 기소내용과 달리 ‘자금액 검 두목의 고문 간부’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게 여씨 측의 주장이다.

그는 1994년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닌 자금액 검 고문간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커피숍 티스폰 맘에 든다며 몰래 가져간 50대 주부

○··커피숍에서 주문한 커피와 함께 나온 티스폰이 마음에 든다며 몰래 가져간 50대 주부가 경찰서행.

○··2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여·59)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김모(32)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방문해 커피를 마신 뒤 1만원

상당의 티스폰 1개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핸드백에 숨겨 나갔다는 것.

○··커피숍 주인인 김씨는 최근 디퓨저(방향제), 커피잔, 티스폰 등을 자주 도난당하자 결국 참치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의 CC-TV분석 수사로 검거된 이씨는 “너무 예쁜 티스폰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